"외고 꿈꾸는 아이, 다양한 독서·활동 사례에서 길 찾아요"

거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자녀
초6

구독 기간
6개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SNS에서 교육 자료를 찾아보다가 〈내일교육〉을 알게 됐어요. 워낙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 모든 콘텐츠를 찾아볼 수도 없고, 꾸준히 믿고 볼만한 교육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죠. 아이가 아직 초6이지만 외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교육과 입시의 변화를 미리 알아둘 필요도 있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8 대입 개편까지 달라지는 게 많아 큰 흐름을 놓치면 방향을 잡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장 먼저 찾아보는 건 독서 관련 기사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주로 소설을 읽었는데, 이제는 비문학으로 독서의 폭을 넓혀주고 싶거든요. 실제 학생들이 읽고 소개하는 책 중에는 저도 몰랐던 것이 많더라고요. 아이에게는 관심이 있는 언어·인문학 관련 도서 외에도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함께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나중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는 만큼 지금부터 여러 분야를 두루 접하면 좋을 듯해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아이는 언어를 좋아하고 인문 계열 전공에 관심이

많아 외고를 목표로 해요. 외국어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아직 초6인 만큼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지요. 교육과정과 대입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선택하는 고교가 이후 대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요. 아이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면서 변화하는 입시에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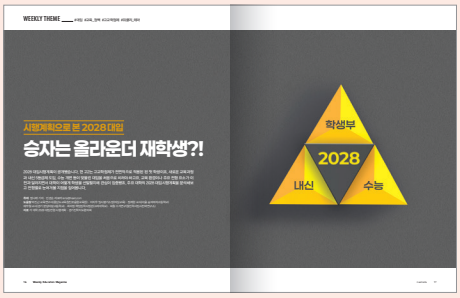
아이와 함께 잡지를 보는 편이라 중학생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기사를 보면 반가워요. 중학생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로서 고입 관련 정보도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

Reporter's A/S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대입 제도는 고입에도 영향을 주죠. 〈내일교육〉도 고교 선택과 고입에 관한 기사를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지금은 특정 전공이나 진로를 넘어서 관심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좋은데요. 독서 관련 기사와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인터뷰, 시사 기사를 함께 활용해보세요. 언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사회·문화·역사·과학 등으로 독서 영역을 확장하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본지 1211호
'자사고 하락, 외고 상승?
고교학점제가 바꾼 고교 선택' 기사 참고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226호

승자는 올라운더 재학생?!

"예전에는 수시면 수시, 정시면 정시처럼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챙겨야 할 것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이나 논술까지 대입의 변화를 미리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후 입시 자료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1248호

한국외대 폴란드학과 강민채(경남 명덕고)

언어에 매료된 미디어 지망생 강점 살리고 꿈에 닿을 전공 택했죠

"아이가 한국외대에 관심이 있어 함께 읽었는데 탐구 활동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평소 아이가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했는데 선배의 실제 사례로 설명해줄 수 있어서 특히 기억에 남아요."